

옛 도청서 아시아문화전당까지 6년간의 그림일기

박성완 '공사장 그림일기'...3월 1일까지 금호갤러리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작업 현장·시민 일상 등
담담히 관찰한 결과물

서양화가 박성완(32)씨에게 옛 전남도청(구도청)은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0년 대학원을 수료한 그는 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광주의 상징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붓을 들고 지난 6년 동안 동구 계림동 작업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시각각 변하는 구도청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작업에 앞서 스스로 선을 그었다. 구도청의 의미들을 해석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상을 눈에 넣고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작가에게는 구도청을 기록하는 작업이 하나의 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씨가 지난 6년의 결과물을 전시장에 펼쳐놓았다. 오는 3월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계속 되는 박씨의 4번째 개인전 '공사장 그림일기'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박씨가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전자가 전시공모에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23일 찾아간 전시장에서는 지난 6년 동안 변화된 구도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이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졌다.

작가는 펜으로 둘러싸인 공사현장, 줄지어 선 타워크레인, 변화되어가는 구도청, 점차 완성되어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모습을 70여 점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담아냈다. 관찰한 현장의 풍경을 색감과 추상적으로 풀어놓은 작품들도 눈에



서양화가 박성완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구도청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작품은 '구도청4501'.

떠다녔다. 구도청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빛과 색채를 달리했다. 공사 현장에도 낮과 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들의 모습, 또 계속된 공사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일상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7m20c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은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함과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규모를 가능하게 했다.

"제가 구도청 작업을 하면서 공감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지난 2010년 구도청 동쪽에 있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현

장을 내려다보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후 남쪽을 지나 서쪽을 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상징성이 커 미루고 있던 금남로와 마주한 도청 입구, 분수대를 한 바퀴 돌아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도청은 이념과 정치적 해석을 넘어 희생된 영혼들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 애써 그런 것들을 부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한번쯤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 정도를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색감이 어둡고 무겁다. 유난히 짙고 붉은 어둠이 화폭 전체를 감싸는 작품도 있다. 역사의 현장이라는

무게감과 공사 현장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여 밝게만 처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공사 현장을 오가는 박씨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공사장 펜스 등을 찍으면 관계자 분들이 나와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를 기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장의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오해에서 생긴 일들 같아요. 또 워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이리저리 우려곡절이 많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드로잉 북을 갖고 현장을 스케치하고 있으면 그런 시각들은 없었어요. 저도 너무 들여다보면서 저널리즘으로 기록하기

보다는 편한 시각으로 작업을 대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구도청을 담은 작품과 함께 지역의 사찰과 역사관, 유적지를 담은 작품 30여점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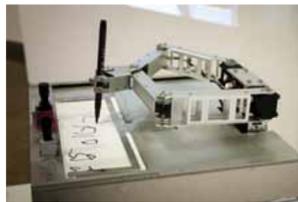
박씨는 이번 전시를 끝으로 구도청 작업을 마무리 짓고 '공사장 그림일기'를 다른 곳으로 확장해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전공 석사를 수료한 박씨는 어등미술제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영여인간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로봇! 예술이야

예술마루·KAIST 기획전



전병삼 작 '전병삼'

GS칼텍스 예술마루는 4월5일까지 'KAIST와 함께하는 과학+예술전 - 로봇은 진화한다'를 개최한다.

KAIST와 예술마루가 함께 기획하는 3번째 기획전으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는 '움직이다' '느끼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상상 속의 실험실, 현실 속의 실험실' 등 5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컴퓨터의 시각으로는 오류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눈에는 얼굴로 보이는 신승백·김용훈씨의 '클라우드 페이스', KAIST 로봇 랩들의 재료와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이부록·김명철씨의 '통속의 뇌', 사람들의 상상 속 로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김현식씨의 '수집가의 방-장난감으로 해석하는 로봇 이야기' 등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와 함께 3월14일에는 카이스트 서기술 연구원이 '상상 속의 실험실, 현실 속의 실험실'을 주제로 관객들을 만나고 3월28일에는 로봇기업 코이안 전병삼 대표가 '두려워 말고 상상하라'를 주제로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1-808-708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보름 4색 마당

3월 1일...놀이마당 등 다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광주의 변영과 시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3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2015 빛고를 정월 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정월 대보름은 설, 단오, 추석, 동지와 더불어 민족 5대 명절의 하나이다.

이번 행사는 기원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 나눔마당 등 크게 4마당으로 진행된다.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원마당에서는 풍산농악의 흥겨

운 길놀이로 시작으로 개막식과 당산제, 마당밭이 등이 펼쳐진다.

놀이마당은 율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경연과 민속공연 등 흥겨운 잔치로 꾸며진다. 민속놀이 경연은 오후 1시·2시·3시 시간대별로 경연이 진행되고, 민속공연에는 중견 예술인들이 참여해 남도민요와 판소리 공연, 통기타 연주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외국인 참가자를, 복조리 만들기 시연, 다문화음식 체험, 가훈씨주기 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13-5362.

/김경민기자 kki@

'일 그란데' 유·스퀘어 온다 내일 음악회

유·스퀘어 문화관이 25일 오후 6시 유·스퀘어에서 '제2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친숙한 세미 클래식 음악, 영화 음악 등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일 그란데' 중창단이 초대 받았다. '일 그란데' 중창단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I feel pretty'와 'Tonight', 오페라 '투란도트' 중 'Nessun Dorma', 영화 '남태평양' OST '여자를 보라'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이태리 민요 'Funiculi Funicula'와 'O Sole mio', 트로트 '어머나', '빨간 구두 아가씨', '아빠의 청춘'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는 유·스퀘어 문화관이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매달 클래식, 국악, 재즈, 대중 음악 등 공연으로 꾸밀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

문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신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 접점 확대를 위한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폐교나 폐목욕탕 등 지역의 유휴시설 일부를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 시설 조성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현재 충남 서산과 경기 등 두 곳의 생활문화센터 등 두 곳의 생활문화센터가 개소한 상태. 올해에는 조성 사업에 120억원, 활성화 지원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신청 및 선정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